

# 초임부의 스트레스감소에 미치는 지지강화교육의 효과에 관한 실험적 연구\*

안 황 란\*\*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임신은 여성에게 여러가지 정신적, 신체적 사회경제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경험이다. 대부분의 경우 임신한 여성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 두려움과 공포, 신체적인 불편함을 경험하게 된다.<sup>1)</sup> 그러한 스트레스는 초임부의 경우 더욱 크다고 보아지며 배우자에게도 삶의 주기(Life Cycle)에 있어 위기를 경험하게 한다.<sup>2,3,4)</sup>

초임부의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될때 모체와 태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므로 가족의 지지행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연구가 1950년대 이후로 계속되어 오고 있다.<sup>5,6)</sup> 그리하여 서구사회에서는 이미 1960년대 이후로 배우자나 임신부를 대상으로 산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임신부만을 산전교육에 참여시켜 왔다. 그러나 초임부는 누구보다도 배우자의 정신적, 육체적 지지를 원하고 있으므로 초임부의 스트레스를 감소 시키기 위해 배우자로 하여금 초임부가 원하는 정신적 육체적 지지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지지 행위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sup>7,8)</sup>

이에 본 연구자는 초임부의 스트레스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배우자의 지지행위에 관심을 갖고 초임부의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배우자 대상의 지지강화교육이라는 간호 전략을 개발하였다.

### 2. 연구의 목적

1. 배우자의 지지강화교육이 지지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다.
2. 배우자의 지지강화교육이 초임부의 스트레스 정도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한다.
3. 배우자의 지지행위와 초임부의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규명한다.
4. 초임부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다.

### 3. 가 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가설은 다음과 같다.

제 1 가설 : 배우자의 지지행위 정도는 지지강화교육을 받은 실험군이 교육을 받지않은 대조군 보다 높을 것이다.

제 2 가설 : 초임부의 스트레스 정도는 배우자가 지지

\* 연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경성대학교 간호학과

- 1) Betty Ann Anderson, *Pregnancy and Family Health*(New York: Mc Graw-Hill Book Company, 1974), pp. 1~76.
- 2) Renee Hoffman Steffensmeier, "A Role Model of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44, No. 2, (May 1982), pp. 456~458.
- 3) Penny williamson, Eugenia C.English, "Stress and Coping in First Pregnancy; Couple-Family physician Interaction," *The Journal of Family Practice*, Vol. 13, No. 5, 1981, pp. 629~635.
- 4) Children's Bureau, *Prenatal Care*(New York: Child Care Publishers, INC., 1962), p. 34.
- 5) Kroger, W.S. and Freed, S.C., *Psychosomatic Gynecology*, (Philadelphia: W.B. Saunders Company, 1951).
- 6) Leonard H. Biskind, "Emotional aspects of prenatal care," *Postgraduate Medicine*, (December, 1958), pp. 633~637.
- 7) Joel Richman, "Men's experiences of Pregnancy and Childbirth," *The Father Figure*,(ed.) Lorna Mckee, Magararet O'brien(London: Tavistock Publications, 1982), pp. 89~103.
- 8) Linda R. Cronenwett and William Kunst-Wilson,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Transition to Fatherhood," *Nursing Research*, Vol.30, No. 4, (1981), pp. 196~200.

강화 교육을 받은 초임부군이 교육을 받지 않은 초임부군보다 낮을 것이다.

제 3 가설 : 배우자의 지지행위정도가 높을수록 초임부의 스트레스 정도는 낮을 것이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의 모집단은 진주시내에 거주하는 임신 7개월의 초임부로서 종합병원산부인과, 개인산부인과 병원과 조산원의 산전진찰차 내원하거나 이미 등록된 초임부와 그 배우자이었다.

표집대상을 시내 위치한 3개 산부인과병원에 산전진찰차 내원하거나 등록된 임신 7개월의 초임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세 장소를 택한 이유는 첫째 연구자가 용이하게 협력을 받을 수 있고, 둘째 대상자의 사회문화적 지리적 수준을 통제 해주는 J시의 같은 구역내에 있기 때문이었고, 셋째 임신 7개월의 초임부에 대한 월평균 건수가 한병원당 30건 이상으로 자료가 충분히 수집되리라 사려되었기 때문이었다.

연구대상 선정 기간은 1984년 4월부터 1984년 7월까지 4개월 동안 이었고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연구대상자의 기준 :

- (1) 임신 7개월이며 초임부와 초임부의 배우자로서
- (2) 진주 시내에 거주하고
- (3) 의사표현을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할 수 있으며
- (4) 질문지의 내용을 이해 할 수 있고
- (5) 연구에의 참여를 수락한자로 선정하였다.

표집방법은 연구조사기간 동안 위에 기술한 선택기준에 맞는 대상을 전수 조사하였다. 그리고 표본의 크기(연구대상자수)는 임의로 총 160명의 초임부가 선정되었으며 실험군과 대조군의 선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류되었다. 이미 등록된 초임부와 내원 하는 초임부중 등록번호가 짝수이면 실험군, 홀수이면 대조군으로 분류하여 실험군은 80명 대조군은 80명 선정하였다. 그러나 가정방문 결과 연구의 참여 거부 및 전출(이사), 유산, 질문지작성 불완전 등으로 제외되어 실험군과 대조군 각각 7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 2. 연구도구

초임부 배우자 대상의 지지강화교육 자료는 초임부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초임부가 배우자에게 기대하는 정신적 육체적 지지행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초임부의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가 개발한 초임부의 주관적인 인지정도를 측정하는 신뢰도 .84(Alpha Value)인 임신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중재변수인 배우자의 지지행위를 측정하기 위해 초임부의 주관적 인지반응정도를 측정하는 본연구자가 개발 하였고 신뢰도 .89(Alpha Value)인 도구를 사용하였다.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사려되는 부부의 결혼 적응도, 성격, 건강상태를 측정하기위해 Spanier<sup>9)</sup>의 결혼적응 척도, Chestnut<sup>10)</sup>의 성격 척도, Coopland<sup>11)</sup>의 산전고위험 임신특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 3. 자료수집 방법

#### 1) 1단계

연구에 사용될 도구의 내용을 제작하기 위하여 70명의 임신부를 대상으로 스트레스요인과 스트레스상황을 조사하고 그들이 원하는 배우자의 정신적 육체적 지지행위에 대하여 예비조사(pilot study)를 실시 하였다. 사전조사의 결과를 문항분석을 통해 신뢰도를 검정하고 신뢰도가 낮은 문항은 삭제하고 2명의 산부인과 교수와 정신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도구를 확정하였다

#### 2) 2단계

자료수집을 위한 면접과정에서 오는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6명의 연구원을 선정하여 교육시키고 훈련하였다. 선정된 연구원은 2명의 산부인과 간호원과 6명의 간호학생이었다. 연구원의 훈련과 지지강화 교육은 본 연구자가 실시하였으며, 산부인과 병원에서 각각 두 차례씩 예비조사하는 기회를 주어서 훈련시켰다.

#### 3) 3단계

1984년 4월 22일부터 1984년 7월 14일까지 12주 3개월 동안 3개의 연구장소에 내원하거나 등록된 임신 7개월의 초임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선정된

9) Graham B. Spanier, "Measuring Dyadic Adjustment; New Scale for Assessing the Quality of Measur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976), p. 16.

10) Norman J. Chestnut, *Introduction to Stress Management*, (Seoul: Korea Eighth Command Chaplains Office, 1981).

11) Coopland, et al., "A Simplified Antepartum High Risk Pregnancy Scoring Form,"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 Vol. 116, No. 7(1977), p. 999.

대상자는 산부인과에 등록된 번호가 짝수는 실험군으로, 홀수는 대조군으로 분류하였다. 모든 대상자의 임신 스트레스와 지지행위를 측정하였으며 실험군으로 선정된 초임부의 배우자에게는 지지강화교육을 실시하였다. 지지강화교육은 유인물과 만화로 제작된 6회의 우송교육과 슬라이드와 녹음 테이프를 통해 25분 동안 본 연구자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배우자의 질문에 대한 응답에 약 10분의 시간이 소요되어 총 교육기간은 1달 동안이었다.

4) 4단계

실험군의 배우자가 지지강화교육을 받은 후 4주간의 실험기간을 주고 난 뒤 다시 초임부의 스트레스와 배우자의 지지행위정도(2차 조사)를 측정하였다. 그러므로 실험군과 대조군은 임신 스트레스와 지지행위 측정에 대한 1차조사와 2차 조사의 간격은 8주간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1) 실험군과 대조군 두 집단의 일반적 특성, 초임부의 스트레스와 배우자의 지지행위에 대한 관계를 t-test와  $\chi^2$ -test로 검정하였다.

(2) 초임부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초임부의 스트레스 점수와 일반적 특성과의 관계에 대한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하였다.

(3) 가설검정으로 초임부 배우자 대상의 지지 강화교육이 초임부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Paired t-test와 Pearson Correlation으로 검정하였다.

(4) 검정된 가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실험군에서 성격, 임신에 대한 느낌, 자연유산의 횟수등의 영향력 있는 변수들을 초임부의 스트레스 정도와 배우자의 지

지행위정도에 대한 Partial Correlation으로 검정함으로써 실험군에서의 스트레스 감소가 초임부 개인적인 특성의 영향으로 인한 것인가 또는 배우자의 지지행위에 기인한 것인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초임부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 제 요인

초임부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을 분석 파악하기 위하여 초임부의 개인적 특성 17개 항목과 종속변수인 임신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초임부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일일꿈 가지 일반적 특성중 결혼만족도, 자연유산의 횟수, 배우자의 지지행위, 성격 등의 요인으로 나타났다(표 1, 2). 즉 초임부의 스트레스는 결혼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4.710, p<.05$ ), 자연유산횟수와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는데( $r=.1939, p<.05$ ), 자연유산의 횟수가 많을수록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초임부의 스트레스는 성격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성격이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정도가 낮을수록 높았으며( $r=.2194, p<.01$ ), 배우자의 지지행위정도가 높을수록 낮게 나타났다( $r=-.5795, p<.001$ ).

초임부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예측인자를 파악하기 위해 배우자의 지지행위와 성격 및 자연유산 횟수와의 다변수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그들이 초임부의 스트레스를 어느정도 설명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표 3). 그 결과 초임부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배우자의 지지행위로 다변수 상관계수 .57947 이었으며 33.6% 설명이 가능하였다( $r=.69.76576, p<.001$ ). 여기에 성격과 자연유산

〈표 1〉 초임부의 결혼만족도별 임신 스트레스 총점에 대한 분산분석

스트레스	구 분	N	Mean	$\frac{SS_B}{SS_W}$	$\frac{MS_B}{MS_W}$	F-value	P-value	$\omega^2$
결혼만족도	만 족	75	68.17	1912.772	956.386	4.710	.011	.341
	보 통	58	75.57					
	불만족	7	75.71					

d.f=137

※  $SS_B$  ; Sum of Squares between groups  
 $SS_W$  ; Sum of Squares within groups  
 $MS_B$  ; Mean of Squares between groups  
 $MS_W$  ; Mean of Squares within groups  
 $SS_T$  ; Sum of Squares Total

$$\omega^2 = \frac{SS_B - (J-1)MS_W}{SS_T + MS_W}$$

〈표 2〉 초임부의 스트레스와 일반적 특성간의 단순상관관계

제 변 수	스트레스		상 관 계 수 (r)
	연 령	형	
자 연 유 산 횃 수			.1939 *
인 공 유 산 횃 수			-.0158
결 혼 적 응 도			-.0203
산 전 고 위 험 입 신 득 점			.0926
임 신 의 원 합 정 도			-.1074
배 우 자 의 지 지 행 위 성			-.5795 ***
성 격			.2194 **

\* p<.05    \*\* p<.01    \*\*\* p<.001

〈표 3〉 초임부의 스트레스에 대한 제변수의 단계적 중회귀분석

제 변 수	R	R <sup>2</sup>	β	F
배 우 자 의 지 지 행 위 성	.57947	.33579	.33579	69.76576***
성 격	.60452	.36545	.02966	39.45011***
자 연 유 산 횃 수	.61379	.37674	.01129	27.40317***

\*\*\* p<.001

횃수를 포함시키며 다변수 상관계수 .61379로 초임부의 스트레스가 37.7% 설명되었다.

2. 배우자 대상의 지지강화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분석 결과

배우자 대상의 지지강화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3가지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였다.

1) 제 1 가설 검증결과

“초임부 배우자의 지지행위정도는 지지강화교육을

받은 실험군이 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t(69) = 12.85$ ,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나 지지되었다(표 4). 즉 초임부 배우자 대상의 지지강화교육은 배우자의 지지행위정도를 증가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전의 실험군과 대조군별 배우자의 지지행위정도를 비교해 보았을때(표 4), 실험군의 평균지지행위 점수는 77.6이었으며 대조군의 평균지지행위점수는 66.1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므로 교육전 배우자의 지지행위정도를 통제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ANOVA로 분

〈표 4〉 배우자의 지지행위에 대한 지지강화교육 전후의 Paired-t 검증

종 속 변 수	집 단	N	시 기	지지강화교육 프로그램 전후 차이				
				Mean	S. E.	t-value	d.f	P-value
배 우 자 의 지 지 행 위	실험군	70	전	77.5571	1.247	-6.86	69	.000
			후	79.3143	1.045			
	대조군	70	전	66.1429	1.199	7.08	69	.000
			후	60.6286	1.012			
실험군	70	후	79.3143	1.045	12.85	137.86	.000	
	대조군	70	후	60.6286				1.012

〈표 5〉 초임부 배우자의 지지행위와 지지강화교육의 관계에 대한 공변량 분석

Source of Variation	SS	df	MS	F	P
Main Effects	6038.879	1	6038.879	187.948	.001
Covariates	11999.107	1	11999.107	373.447	.001
Explained	18037.986	2	9018.993	280.697	.001
Residual	4401.900	137	32.131		
Total	22439.886	139	161.438		

Covariates : 교육전 배우자의 지지행위

〈표 6〉 실험군 대조군별 초임부의 스트레스에 대한 지지강화교육전후 paired-t의 검정

종속변수	집단	지지강화교육의 전후 차이					
		Mean	S.E.	t-value	df	p-value	
초임부의 스트레스	실험군	70	62.5286	1.534	-9.37	138	.000
	대조군	70	80.7000	1.187			

〈표 7〉 초임부의 스트레스와 배우자의 지지행위와의 관계에 대한 단순상관 관계

지지행위	스트레스	인수	상관계수(r)
배우자의 지지행위		140	-.5795***

\*\*\* p < .001

석하였다.

〈표 5〉에서 보는 바와같이 교육전 배우자의 지지행위 정도를 통제한 공변량 분석에서  $F=280,697, p=.001$ 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역시 지지되었다. 그러므로 지지강화 교육은 초임부 배우자의 지지행위 정도를 증가시켰다고 해석할 수 있다.

초임부 배우자의 평균 지지행위점수 : 실험군=79.31  
대조군=60.63

로 나타낸 것으로 실험군은 배우자의 지지행위 정도가 교육전 77점에서 교육후에는 79점으로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대조군에서는 교육전 실험군과 같은 시기에 측정된 지지지행위 정도가 66점에서 실험군의 강화교육 후와 같은 시기에 측정된 지지행위 정도는 60점으로 감소하였음을 볼 수 있다.

2) 제 2 가설 검정결과

“초임부의 스트레스 정도는 배우자가 지지강화교육을 받은 초임부군이 교육을 받지 않은 초임부군보다 낮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정한 결과는  $t값 -9.37$ ,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나 지지되었다(표 6).

〈도 7〉에서 보는 바와같이 지지강화교육 전에 실험

군과 대조군의 평균 임신 스트레스 점수는 70점으로 같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나, 교육 후에는 배우자가 지지강화교육을 받아 지지행위 정도가 높아진 실험군은 스트레스 점수가 62점으로 감소하였음을 나타내었고 대조군에서는 80점으로 증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3) 제 3 가설 검정결과

“배우자의 지지행위 정도가 높을수록 초임부의 스트레스 정도는 낮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정한 결과는  $r=-.5795, p=.001$ 로 유의한 역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표 7). 따라서 배우자의 지지행위 정도가 높을수록 초임부의 스트레스 정도는 낮을 것이다라는 제 3 가설은 지지되었다.

IV. 논 의

이 장에서는 분석결과에 대하여 논하였다.

1. 초임부 배우자 대상 지지강화교육의 효과분석에 대한 논의

1) 제 1 가설 검정결과

초임부 배우자의 지지행위 정도는 지지강화교육을 받

은 배우자군이 교육을 받지 않은 배우자군보다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에 대한 Paired-t검정을 실시한 결과 지지강화교육을 받은 집단이 받지 않은 집단보다 지지행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연구의 결과는 지지강화교육이 배우자의 지지행위에 미치는 효과를 증명해 준 것이었다고 본다.

배우자는 가족 중 누구보다도 초임부와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으므로 초임부의 잠재적 지지의 근원이 된다고 한다.<sup>12,13,14,15)</sup>

Jimenez<sup>16)</sup>는 임신한 부부대상의 산전교육은 임신 3기부터 출산에 이르기까지 전인적이고 정신예방적인 교육(Comprehensive Prophylactic Education)과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므로 임신부의 정서적인 적응을 도와줄 수 있으며 배우자가 임신부를 지지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은 임신이란 정상적인 위기상태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제시하였으며, Gabel<sup>17)</sup>의 40명 예비아버지(expectant father) 대상으로 행한 연구에 의하면 산전교육(Father's class)에 참여하지 않은 임신부의 배우자는 임신과 출산, 임신부와 태아에 대하여 부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으나 참여한 배우자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가져서 자신감을 가지고 더 좋은 부부관계를 형성하고 임신부와 태아에 대한 친밀감을 느낄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Cronenwett와 Newmark<sup>18)</sup>, Wilson<sup>19)</sup>의 152명 예비아버지 대상의 연구에서는 산전교육에 임신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한 배우자는 그렇지 않은 배우자보다 임신과 출산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자신이 임신부의 가장 중요한 지지자로서 긍지를 가지고 사랑과 관심으로 부인을 돌보아주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산전교육이

배우자의 임신부에 대한 지지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 주었다. 또한 Williamson<sup>20)</sup> 등의 처음 임신을 경험하는 12쌍 부부의 스트레스와 극복하는 양상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산전교육은 원만한 부부관계를 형성하게 하여 배우자의 지지행위를 증진시키고 부부상호간의 욕구를 만족시켜 준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May<sup>21)</sup>의 연구에 의하면 임신에 대한 예비아버지(expectant father)의 3가지 단계에 대한 심리적·정신적 참여는 아버지와 태아 사이의 친밀감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임신과 출산의 합병증을 감소시켜 준다고 한다. 아버지의 산전교육에의 참여는 임신부에 대한 지지를 높여주며 부부가 함께 예비부모로서 준비를 하는 기회가 된다. 이러한 점에 대하여 Harper<sup>22)</sup>도 또한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예비아버지로서 산전교육에의 참여는 부모됨을 미리 준비하는 기회를 주고, 임신부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가사일을 도와주고 임신의 힘듦을 함께 나누며 임신을 가치있게 느끼도록 하는 지지행위를 강화한다고 한다.

<도 6>을 보면 실험군의 평균 지지행위점수는 교육 후에 유의하게 높아졌으나 대조군은 낮아졌다. 이것은 대조군일 경우 임신현상이 장기적으로 계속됨에 따라 초임부의 배우자가 임신현상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초임부를 어떻게 지지하여 주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지행위가 감소한 것으로 사려되며 실험군은 초임부를 지지하는 방법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지지행위가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 2) 제 2가설 검정결과

초임부의 스트레스 정도는 배우자가 지지강화교육을

- 12) Stephen Horsley, "Psychological management of the Pre-Natal Period," *Modern Perspectives in Psycho-Obstetrics* (ed.) John G. Howells, (New York: Brunner/Mazel Publishers, 1972), pp. 291~313.
- 13) Thomas A Picone, etc., "Pregnancy outcome in North American Women-Effects of diet, Cigarette Smoking, Stress, and Weight gain on placentas, and on Neonatal physical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The 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 (December, 1982), pp. 1214~1224.
- 14) Penny Williamson, Eugenia C. English, op. cit., p. 629.
- 15) Griffith, S., "Pregnancy as an event with crisis potential for marital Partners:A Study of interpersonal needs," *Journal of Obstetric and Gynecologic Nursing*, (1976), pp. 35~38.
- 16) Sherry Lynn Mims Jimenez, "Education for the Childbearing year," *JOGN Nursing*, (March/April 1980), pp. 97~99.
- 17) Holen Gabel, "Childbirth experience of unprepared fathers," *Journal of Nurse-Midwifery*, Vol. 27, No. 2, (March-April, 1982), pp. 5~8.
- 18) Linda R. Cronenwett, Lucy L. Newmark, "Fathers' response to childbirth," *Nursing Research*, Vol. 23, No. 23, (May-June, 1974), pp. 210~216.
- 19) Linda R. Cronenwett, William Kunst Wilson, Loc. cit.
- 20) Penny Williamson, etc., Loc. cit.
- 21) Katharyn Antle May, "Active involvement of expectant fathers in pregnancy, some further considerations," *Journal of Gynecological Nursing*(March/April, 1978), pp. 337~340.
- 22) Robert A. Harper, *Marriage*(New York: Leton Century Crofts, Inc., 1949)

받은 초임부군이 교육을 받지 않은 초임부군보다 낮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Paired-t검정을 실시한 결과 배우자가 지지강화교육을 받은 초임부군이 받지않은 초임부군보다 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배우자 대상의 지지강화교육이 초임부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증명해 준 것이었다고 본다. 현재까지의 많은 연구는 산전교육에 대한 부부의 참여가 바람직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으나,<sup>23,24)</sup> 구체적으로 초임부의 무엇에 어느만큼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적다. 또한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적 관습에 의하여 남자는 임신과 출산에 무관심해야 한다는 유교적 사고방식<sup>25,26)</sup> 산전교육에의 참여를 꺼리고 있으며 한국상황에서 초임부 대상의 산전교육 프로그램은 있으나 배우자 대상은 산전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적은 실정이다.

Anderson<sup>27)</sup>은 초임부의 배우자에게 교육할 내용을 제시하면서 배우자가 산전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임신부로 하여금 임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하고 임신의 경험을 함께 나누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임신부의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준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배우자가 산전교육을 받은 이후에 초임부를 정신적 육체적으로 돌보아 주는데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Gabel<sup>28)</sup>의 준비되지 않은 예비아비의 임신 및 출산경험에 대한 연구에서 배우자가 산전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로써 임신과 출산에 대한 자신감을 증진시키고 임신부와의 대인관계나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고 자신뿐만 아니라 임신부의 두려움과 불안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하여 Jimenez<sup>29)</sup>도 동일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산전교육의 효과로써 임신과 출산에 대한 무지로 오는 부부의 두려움을 감소시켜 주

고 정신건강을 유지케 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특히 그는 산전교육을 정신건강유지방법(Psychoprophylactic Method)으로써 표현하고 이것을 위한 정보를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도구(positive attitude coping tools)로 표현하였고 남편이 임신부를 어떻게 돌보고 지지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을 받으므로써 부부의 임신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켜 준다고 하였다. Hall<sup>30)</sup>은 교육이 신생아에 대한 초임부의 인지에 미치는 영향에서 임신한 부부는 부모됨에 대한 과도기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 대상의 산전교육이 없는 임신부의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주는 바람직한 지지역활(supportive roles)을 할 수 없다고 제시하면서 배우자 대상의 산전교육의 중요성을 논하였다.

이<sup>31)</sup>의 분만과정시 남편의 참여가 초산부의 상태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초산부의 상태불안은 남편이 산전교육과 분만과정에 참여한 실험군이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낮게 나타났다(p=.0004)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이것은 배우자 대상의 산전교육이 초임부의 불안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여 본 연구의 가설 설정을 지지해 주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본 연구결과와 동일한 견해를 진술하고 있었으며, 지지강화교육이 초임부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지지하였다.

<도 7>을 보면 실험군의 평균 스트레스 점수는 교육 후에 유의하게 낮아졌으며 대조군은 높아졌다. 실험군은 배우자의 지지강화교육의 효과로 인하여 초임부의 스트레스가 낮아졌으나 대조군은 임신 스트레스가 분만일에 가까울수록 스트레스가 높다는 Thomas<sup>32)</sup>의 결과와 동일하였다.

다. 제 3 가설 검정결과

배우자의 지지행위정도가 높을수록 초임부의 스트레

23) Children's Bureaut Loc. cit.

24) Lynne Anderson Hall, "Effect of teaching on primiparas' perceptions of their newborn," *Nursing Research*, Vol. 2, No. 5(September-October, 1980), pp. 317~322.

25) 최재석,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서울:개문사, 1983), 27~41면.

26) 최재석, 전계서.

27) Betty A. Anderson, Loc. cit.

28) Holen Gabel, Loc. cit.

29) Sherry Lynn Mims Jimenez, Loc. cit.

30) Lynne Anderson Hall, "Effect of Teaching on Primiparas' Perceptions of Their Newborn," *Nursing Research*, Vol. 29, No. 5, (September-October, 1980), pp. 317~318.

31) 이경화, "분만과정시 남편의 참여가 초산부의 상태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3), 31~32면.

32) Clayton L. Thomas, "Psychosis after childbirth: Ecological aspects of single impact stress," *The American Journal of the Medical Science*, (September, 1959), pp. 363~385.

스 정도는 낮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관계(Pearson Correlation)를 실시한 결과 지지강화교육전과 후의 배우자의 지지행위와 임신 스트레스간의 관계를 볼때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지지강화교육후가 전보다 임신 스트레스가 낮았다. Horsley<sup>33)</sup>는 산전기간 동안의 심리적 관리에 대한 연구에서 배우자의 임신부에 대한 지지역할(supporting role)이 임신 스트레스 감소 전략중의 하나라고 제시하였는데 특히 남편의 성숙한 인성(personality)과 임신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질적인 지지행위는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Williamson과 English<sup>34)</sup>는 첫 임신은 부부로 하여금 위기감을 느끼게 하며 생활에의 재적응을 하게하는 스트레스요인으로써 이를 극복하는 데는 배우자의 지지가 가장 중요한 근원이 됨을 밝혔다. 또한 Richardson<sup>35)</sup>은 임신을 중요한 사회적 변화로 보며 임신부의 신체적 정신적 문제들에 대한 갈등을 중재해 주는 특별한 지지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특히 남편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으로 보았으며 임신동안 임신부에 대한 지지가 부족하면 고위험 임신의 지표가 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Gordon<sup>36)</sup>의 임신에 대한 정서적 질관의 사회적 예측인자와 치료에 대한 연구에서도 임신시 부적절한 배우자나 가족의 지지행위가 정서적 문제(우울, 권태)들을 유발한다는 것을 밝히면서 이러한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배우자의 특성과 지지유형, 신체적 인격적 특성임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Rothstein<sup>37)</sup>의 갈등과 환경적지지와 임신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임신 2~3기의 초임부에게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울현상이 감소하였음을 밝히고 임신부에 대한 지지행위가 매우 중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Rising<sup>38)</sup>은 여성에게 있어서의 스트레스(Stress in Women)라는 저서속에서 임신과 출산을 여성의 딜레마(dilemma)로 보고서 임신부에 대한 지지행위의 부족은 부부 모두에게 임신과 분만, 부모됨에 대한 불안

을 유발시킨다고 진술함으로써 임신부에게 배우자나 가족의 정신적 육체적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Cousins와 Vincent<sup>39)</sup>는 배우자의 지지행위는 부부관계가 상호 감정이입적인 관계이나 협조적인 관계이나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즉 상호 지지적인 관계일수록 결혼적응도가 높아서 첫 임신으로 오는 스트레스를 잘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본 연구의 배우자의 지지행위가 높을수록 초임부의 스트레스가 낮다는 결과를 지지하였다. 초임부의 스트레스 유형에는 태아, 임신부, 배우자와 관련된 스트레스 등의 3가지가 있는데 지지강화교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감소는 특히 태아 및 배우자와 관련된 스트레스 유형에서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임신부 자신과 관련된 스트레스에는 유의하지 않았다(부록 30). 이것은 임신부와 관련된 스트레스들은 주로 임신으로 일어나는 신체적 생리적인 증상들(하지의 부종, 복부의 팽대, 얼굴의 기미등)로 인하여 유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지지행위로서 감소시켜 줄 수 있는 스트레스 유형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사려된다.

## 2. 초임부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에 대한 논의

초임부의 스트레스 정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자연유산의 횟수, 결혼만족정도, 성격, 배우자의 지지행위 등이었다.

첫째, 초임부의 스트레스와 자연유산의 횟수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낸 것은 자연유산의 횟수가 많을수록 초임부에게 유산에 대한 불안정도가 높아서 순상관관계를 보였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김<sup>40)</sup>과 한<sup>41)</sup>의 자연유산과 상태불안과의 관계에 대한 결과와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연구대상자가 본 연구에서는 초임부이고 김과 한

33) Stephen Horsley, Loc. cit.

34) Penny Williamson, Eugenia C. English, Loc. cit.

35) Peggy Richardson, Loc. cit.

36) Gordon, R., Gordon, K., "Social factors in the prediction and treatment of emotional disorders in pregnancy," American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1959), pp.1074~83.

37) Rothstein, A., "Depression in pregnancy as it relates to feminine identification conflict and perceived environmental support," (Ph. D. Dissertation, Smith College School for Social Work, 1971).

38) Sharon Schindler Rising, Loc. cit.

39) Peter C. Cousins, John P. Vincent, "Supportive and aversive behavior following, spousal complai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45, No. 3, (August, 1983), pp.679~681.

40) 김혜원, "고위험 임신과 상태불안과의 상관연구"(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3), 34면.

41) 한혜실, "임신부의 성격과 불안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 23권 1호, (1984), 69면.



의 연구에서는 경임부가 초임부보다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려된다. 그러나 박<sup>42)</sup>은 자연유산의 횡수가 많은 초임부일수록 자연유산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산전진찰과 문의를 자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사려된다.

둘째, 초임부의 스트레스와 결혼만족 정도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낸 것은 결혼만족 정도가 높은 초임부군이 낮은 초임부군보다 스트레스 정도가 낮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이<sup>43)</sup>의 초산부의 상태불안은 결혼생활에 불만족한 초임부군이 만족한 초산부보다 유의하게 높았다는 연구결과와 Levine과 Scotch<sup>44)</sup>의 부부의 결혼만족정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낮아서 부부조화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그러므로 결혼만족정도는 초임부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려된다.

셋째, 초임부의 스트레스와 성격적 특성과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낸 것은 성격적 특성이 사회성이 낮을수록, 우울성이 낮을수록,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어려운 성격일수록 초임부의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허<sup>45)</sup>의 임신부의 성격이 원만한 경우에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심리적 변화가 적었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김<sup>46)</sup>은 개인이 스트레스를 느끼는 강도는 성격적 특성에 따라 다르다고 하였으며, Lazarus<sup>47)</sup>는 성격적 특성들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양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고 Smith와 Selye<sup>48)</sup>는 개인의 성격이 스트레스 반응과 저항에 영향을 미친다고 진술하였다. 즉 초임부의 성격특성에 따라 스트레스를 느끼는 강도와 대처하는 양상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초임부의 성격은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려된다.

교육후 초임부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배우자의 지지행위, 성격, 자연유산의 횡수로 교육 전에는 유의하지 않았던 배우자의 지지행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지지강화교육의 영향으로 나타난 결과로 사려된다.

## V. 요약, 결론 및 제언

### 1. 요약

본 연구는 초임부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 초임부의 배우자에게 지지강화교육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측정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초임부의 스트레스 감소에 대한 배우자 대상의 지지강화교육의 효과를 규명하고 초임부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연구방법은 1984년 4월 1일부터 동년 7월 14일까지 J시의 3개 산부인과병원에 산전진찰차 내원하거나 등록된 140명의 초임부를 대상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누어 질문지 조사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도구는 임신 스트레스와 배우자의 지지행위에 대한 초임부의 주관적 인지도를 측정한 것으로 사전조사와 문헌고찰을 통해 저자가 선정 적용하였고 사전에 신뢰도와 타당도 검정을 거친후 임신 스트레스 측정도구와 지지행위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또한 선행변수인 초임부의 성격과 결혼적응도 및 산전고위험임신특점, 초임부의 일반적인 특성들로 구성된 측정도구와 실험처치를 위해 지지강화교육자료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초임부의 스트레스와 일반적인 특성, 성격, 결혼적응도, 산전고위험임신특점간의 관계 및 영향의 강도를 확인하기 위해 t검정, 카이제곱검정( $\chi^2$ -test), 분산분석(ANOVA),  $\omega^2$ , 피어슨상관관계(Pearson Correlation Test)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초임부의 스트레스에 대한 예측인자를 확인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분석(Pearson Correlation Test)과 단계적 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하였다. 또한 지지강화교육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유사성 검정을 t검정,  $\chi^2$ 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가설검정으로서 지지강화교육 전후의 임신 스트레스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t검정과 Paired-t검정 및 공변량분석(ANOVA)과 피어

42) 박인서, 순산의 비결과 기형아예방(서울: 삼성출판사, 1981), 98~101면.

43) 이정후, 전계서, 21면.

44) Sol Levine, Norman A. Scotch, Social Stress(Chicago: Aldine Publishing Company, 1970), pp. 23~25.

45) 허정원, "임신 및 분만의 심리적 변화에 연관된 제 요인", 공중보건잡지, 11권 2호, (1974), 223면.

46) 김원경, 행동과학(서울: 박영사, 1976), 66면.

47) Richard S. Lazarus, Psychological Stress(New York: McGraw-Hill BookCo., 1966).

48) Marcy J.T. Smith, "Reducing the negative effects of stress," "Theoretical Components of Nursing, Sylvia G. Brussel (ed.), Cinn Custom Publishing, p. 191.

는 상관관계(Pearson Correlation)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초임부의 배우자 대상 지지강화교육의 효과에 대한 결과

초임부의 배우자 대상 지지강화교육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군과 대조군간에 가설검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 1 가설인 지지강화교육을 받은 배우자군은 교육을 받지 않은 배우자군보다 지지행위 정도가 높을 것이라는 지지되었다( $t=12.85, d.f=137.86, p<.001$ ).

제 2 가설인 초임부의 스트레스 정도는 배우자가 지지강화교육을 받은 초임부군이 교육을 받지 않은 초임부군보다 낮을 것이라는 지지되었다( $t=-9.37, d.f=138, p<.001$ ).

제 3 가설인 배우자의 지지행위 정도가 높을수록 초임부의 스트레스 정도가 낮을 것이라는 지지되었다( $r=-.5795, p<.001$ ).

2) 초임부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 제요인

초임부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 제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선행변수 18개항과 종속변수인 초임부의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교육전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내용만을 설명하는데 초임부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배우자의 지지행위, 성격, 자연유산의 횟수, 결혼만족정도 등이었다. 이상의 4가지 요인들 중에서 초임부의 스트레스에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배우자의 지지행위와 성격이었다. 초임부의 스트레스는 배우자의 지지행위가 높을수록, 성격이 원만할수록, 자연유산의 횟수가 적을수록 낮았으며 결혼만족도가 높은 초임부군이 낮은 초임부군보다 낮게 나타났다.

## 2. 결 론

초임부의 스트레스 감소에 대한 배우자 대상 지지강화교육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가설검정을 한 결과 지지강화교육이 초임부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임부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초임부에 대한 지지행위를 강화시켜 주기 위한 산전교육을 하는 것은 배우자의 지지행위를 강화하고 초임부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배우자 대상의 지지강화교육은 지지행위를 증가시키고 초임부의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줄 수 있음을 제시해 주었다. 또한 초임부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배우자의 지지행위 자연유산의 횟수, 결혼만족정도, 성격 등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기반으로 초임부의 스트레스가 280일 동안이라는 장기적인 특성과 대부분의 정신적, 육체적 지지가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성때문에 초임부의 심리적 환경인 배우자에게 지지강화교육을 실시하여 초임부의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주는 교육의 효과를 고려할 때, 이를 산전교육 속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3. 제 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간호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간호 연구의 측면에서 연구자에 의해 개발된 도구에 대한 표준화를 위해 같은 도구로 동일한 상황에서의 반복적인 연구를 제언한다. 그리고 초임부의 스트레스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유사실험연구를 제언한다.

간호이론 측면에서 초임부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간호 전략에 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하여 임신 스트레스 이론 개발이 계속되어야 한다.

간호실무 측면에서 임신부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임신부를 위한 배우자 대상의 지지강화교육 프로그램을 산전교육 속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고, 동시에 배우자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제도적 밑받침과 계몽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 —Abstract—

### An experimental study of the effects of husband's supportive behavior reinforcement education on stress relief of primigravidas.\*

Ahn, Hwang-Lan\*\*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husband's supportive behavior reinforcement education on stress relief of primigravidas. The purpose was to reinforce husbands' supportive behavior and relieve primigravidas' stress.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determine factors influencing Primigravidas' stress and the effect of husbands' supportive behavior reinforcement edu-

\* Doctoral Thesis at Yonsei University

\*\* Dept. of Nursi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cation on stress relief of primigravidas.

The subjects, consisting of 140 primigravidas who registered or visited in three obstetrics and gynecology clinics in J city, were divided into at random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Data were collectpe from April To July, 1984 through interviews during hospital visits, and by questionnaires.

The husbands' supportive behavior reinforcement education and the measurement tools were developed by the investigator from the literature and during pilot study: the instruments to measure primigravidas' stress and husbands' supportive behavior were tested for reliability and validity.

Personality characterisc were measured by Chestnuts' Stress Management instrument. T-test, ANOVA,  $\omega^2$ , and Pearson Correlation were used in analyzing the data to confirm the intensity of the influence and the relation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primigravidas' stress. Pearson correlation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were used to confirm the predictors of primigravidas' stress. Independent variables were compared by means of t-test and  $\chi^2$ -test to confirm significant discrepancy of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T-test, paired t-test, pearson correlation were used in analyzing the data to confirm the effect of husband's supportive behavior reinforcement education on stress relief of primigravida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Results from analyzing the effect of husbands' supportive behavior reinforcement education: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And husbands' supportive behavior, personality, marital Satisfaction, natural abortion variables influenced at primigravidas' stress.

A hypothetical test by comparative analysis of the measurement of primigravidas' stress and husbands' support behavior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the control group before and after the experiment to confirm the effect of husbands' supportive behavior reinforcement education resulted in the following:

The first hypothesis that husbands' supportive behavior reinforcement education will increase husbands' support behavior to relieve primigravidas' stress was supported.

The second hypothesis that husbands' supportive behavior reinforcement education will relieve primigravidas' stress was supported. As a result, it was shown that husbands' supportive behavior reinforcement education relieved primigravidas' stress, and the hypotheses were supported.

The third hypothesis that the higher the degree of husbands' supportive behavior, the lower the primigravidas' stress was supported.

It was concluded that husbands' supportive behavior reinforcement education increase husbands' supportive behavior and relieves Primigravidas' stress.

### 참 고 문 헌

#### <단행본>

강두희, 생리학(서울:신광출판사, 1981).  
 김수지, 김정인, 가족 정신 건강(서울:수문사, 1981).  
 김원경, 행동과학(서울:박영사, 1976).  
 매혜영, 간호 조산학(서울:일신부인병원, 1978).  
 이경혜, 조미영, 고위험 모성 간호학(서울:수문사, 1981).  
 웨인 앤더슨저, 안신영역, 가정 생활 설계(서울:한국 기독교 석회, 1972).  
 최연순, 조희숙, 장훈자, 모성 간호학(서울:수문사, 1980).  
 최재석, 현대 가족 연구(서울:일지사, 1982).  
 하영수, 산소아과 간호학(서울:수문사, 1975).  
 한동세, 정신과학(서울:일조각, 1977).  
 Abbey, J.C., "A General Systems Approach to Nursing," *Improvement of Curricular in schools of Nursing* (ed. J. Smith), Boulder, (Colo: Western Interstate Commission for Higher Education, 1970).  
 Ackerman N.W., *The Psychodynamics of Family Life*(New York: Basic Books, 1958).  
 Aldous, J., *Family problem Solving*(Hinsdale: The Dryden Press Inc., 1971).  
 Anderson, B.A., *Pregnancy and Family Health*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1974).  
 Anderson, B.A., Camacho, M.E., and Stark, J., *Pregnancy and Family Health*(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1974).  
 Appley, M.H., Trumball, R.(ed.), *Psychological Stress*, (New York: Appleton-Centry-Crafts, 1967).  
 Baber, R.E., *Marriage and the Family*(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Inc., 1953).

〈논문 및 정기 간행문〉

- 김의숙, "부부의 조화도가 그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간호학 논집, 제 5집(1981), 연세대학교 간호학 씨구소.
- 김조자, "환자 스트레스와 가족의 방문에 관한 실증적 연구"(박사 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3).
- 문영숙, "분만의 정상경과에 관한 산전 교육이 초임부의 상태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석사 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0).
- 박인덕, "아내가 기대하는 남편의 역할조사." 숙명여대 아세아 여성문제 연구소, 제16집(1977).
- 이태현, "한국 기혼 여성의 배우자의 가족 관계 고찰" 가정학회지, 제 6 권(1968).
- 조두영, "임신기 심리와 성생활", 진단과 치료, 2권 3호, (1982).
- 조은숙, "임신부 심리검사", 아세아 여성 연구, 제 2집, (1963).
- Barash, D.A., "Dynamics of the Pathological Family System," *Psychiatric Care*, Vol. 17, No. 1(1979), pp. 17~24.
- Belsky, J., Spanier, G.B., Rovine, M., "Stability and Change in Marriage Across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45, No. 3, (August, 1983), pp. 567~572.
- Breen, D., "The birth of the first Child," *Towards an Understanding of femininity* London University Press, 1975.
- Bruner, J.S., *Toward a theory of instruction*(Cambridge, Mass: Havard University Press, 1966).
- Bryans, F.E. and Belither, A., "17-Hydro corticosteroids level in pregnancy," *American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1961), pp. 42~52.
- Cobb, S.,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Vol. 38, No. 5, (September-October, 1976), pp. 300~314.
- Cohn, L., "Coping with Anxiety: A Step-By Step Guide," *Nursing 79*(December, 1979), pp. 34~37.
- Doering, Susan G., Entwisle, Doris, R., "Preparation During Pregnancy and Ability to Cope with Labor and Delivery," *American Journal Orthopsychiat*, Vol. 45, No. 5(October, 1975), pp. 825~837.
- Dooher, Mary E., "Lamaze Method of Childbirth," *Nursing Research*, Vol. 29, No. 4(July, 1980), pp. 220~224.
- Ferreira, A.J., "Emotional Factors in Prenatal Environment,"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Vol. 141, No. 1, (1965), pp. 108~114.
- Gardner, K.G., "Supportive Nursing: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JPN and Mental Health Service*, Vol. 17, No. 10, (October, 1979), pp. 10~15.
- Gemzell, C.A., "Blood levels of 17-Hydroxycorticosteroids in Normal Pregnancy," *The Journal of Clinical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August, 1953), pp. 898~902.
- Moss, F. T., Meyer, B., "The Effects of Nursing Interaction upon pain Relief in Patients," *Nursing Research*, Vol. 15, No. 4(Fall, 1966), pp. 303~306.
- Neal, M.E., "Theory and Experiment relation Psychoanalytic displacement to stimulus response generalization," *Journal of Abnormal Social Psychology*, Vol. 43, (1948), p. 402.
- Norbeck, J.S., "Social Support; A Model for clinical Research and Application," *Advances in Science*, (July, 1981), pp. 43~59.
- Obrzut, L., "Expectant fathers perceptions of fathering," *American Journal of Nursing*, (1976), pp. 1440~1442.
- Panzarine, S., Elster, A.B., "Prospective Adolescent Fathers: Stresses during Pregnancy and implications for nursing intervention," *JPNMHS*, Vol. 20, No. 7, (July, 1982), pp. 21~23.
- Parad, H.J., Caplan, G., "A Framework for Studying Families in Crisis," *Theoretical Foundations for Nursing*, pp. 362~374.
- Patkai, P., "Laboratory Studies of Psychological Stres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iatry in Medicine*, Vol. 5, No. 4(1974), pp. 575~85.
- Pierce, L.M., "Usefulness of a systems approach for problem Conceptualization and Investigation," *Nursing Research*, Vol. 21, No. 6(1972).
- Porter, L.S., & Demeuth, B.R, "The impact of marital adjustment on pregnancy acceptance," *Maternal and Child Nursing Journal*, (Summer, 1978), pp. 103~113.
- Rindfuss, R.R., John, C.S., "Social Determinants of Age at First Birth,"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29, No. 3, (August, 1983), p. 553.